

“ 무덤이 열린 것처럼 ”

■ 이종윤 원로목사

주님의 무덤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기 쉽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열린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도 그가 주님이신 줄을 몰랐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주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먼 길을 가면서도 그가 부활하신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저희의 눈이 가리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눈이 먼저 열려야 한다. 그래야만 진리 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께 경배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오히려 의심했던 것은 아직 저들의 영안이 열려 있지 않았던 까닭이다. 바울도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의 눈이 열린 다음에야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곧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

한국교회가 받은 복과 은혜가 많아 크게 부흥했고 많은 일들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도 적지 않게 있음을 보아야 한다. 그것을 교회 정치 제도를 고침으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보다 교회 본질을 상실한 채 걸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되었다면 어디에 무슨 병이 들었는지를 바로 진단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

주님의 무덤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 제자들처럼 신앙지진아가 되기 쉽다. 주님의 무덤 속을 걱정스런 눈으로 들여다보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다.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자기들의 경험과 얽은 상식을 앞세워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 제자들의 믿음과 소망은 죽었기 때문이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위기의 순간에 이것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위기가 오면 당황하고 절망과 두려움에 떨게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은 쉽게 믿는다.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조차 의심 없이 믿는다. 제자들도 그래서 각기 흩어졌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를 못했다. 도마도 의심한 것은 과학정신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 문을 열지 못해 믿음이 죽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고는 숨겨져 있는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제자들은 믿음과 동시에 소망도 죽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알았지만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면서 원망과 탄식의 소리를 퍼부었다. 그들이 바랬던 분은 생명을 구원할 자가 아닌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 지도자 정도를 기대했는데 그 희망이 십자가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던 것이다. 믿음 소망이 다 죽었으나 그들에게 사랑이 불씨같이 남아 그들을 그 무서운 밤에 무덤으로 달려가게 했다. 사랑이, 죽은 믿음과 소망을 살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흩어졌던 이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다. 주님의 무덤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입이 열려야 한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무덤이 열린 것처럼 이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입이 열려야 한다.

형제여, 그대는 어찌하여 열린 무덤 앞에서 짐짓 눈을 감고 주님을 보지 않고 현실만 개탄하고 남을 비난만 하고 있는가. 마음을 닫고 자기 의만 주장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므로 죽었던 믿음, 소망을 소생시키고 ‘내가 주를 보았노라’고 외친 막달라 마리아처럼 외쳐 보자.

-한국장로신문 [제 1361호] 2013년 4월 6일 발채-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Mr. Kyung Won Jang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1 Cor 15:1-4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Rev. Euichang Kim
Anthem	Jerusalem Choir
Sermon	“According to the Scripture” Rev. Euichang Kim
* Hymn	286 [Come into my heart, blessed Jesus]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역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안), 이은준(해정, 양재성)한주(카호스탄), 이경연,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화정, 우상식)김경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우, 김영호(서항정)러시아, 하창범(현미선)일본, 김낙형-오정혜(캐나),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보이), 필리몬, 프란시또, 수레리, 수비쓰, 알로롱, 비사누(보도, 보디소프, 린록, 수리온 (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민(홍성일)필리우,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미디카(브라키)
--

제29권 제46호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2019년 11월17일
	천국시민 양성 · 만민에게 전도 · 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		

“ 소는 그 임자를 아는데 내 백성은? ”

■ 사 1:2-4
 현대인들은 무엇이든 조정하려고 하지 조정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 **순종하지 않는 인간**
 인류가 잃어버린 제도 가운데 하나가 사사 정치입니다. 사사 정치가 발전 계승되었다면 현대 사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거부하고 나서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지도자로 보내시는 것을 거부하고, 사람의 손으로 직접 뽑아 왕으로 삼겠다고 한 이후부터 인류 사회는 종말로 치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학생과 폭력, 독재 정권의 침탈 속에서 못 살겠다고 메시아를 보내 달라고 애원하고 아우성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성경은 인간 범죄사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2. **자기 영광을 좇지 않는 소**
 본문은 예레미야 2장 10-13절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좇아다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소보다도 못하다” 라고 탄식하십니다. 사실 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동물입니다. 모를지기 성도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소처럼 버릴 것이 없는 온전히 성결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먹을 것, 자기 이익, 자기 영광을 좇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이익 때문에 전쟁합니다. 그러나 소는 이익을 탐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단합된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을 향한 절대 순종, 절대 복종입니다. 소는 자신의 영광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만 따릅니다.

3. **순종하는 소**
 소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거친 것을 먹고도 아주 부드러운 우유를 만들어 생명의 풍성함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소는 좋은 것을 먹어서 힘이 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든지 감사함으로 먹고 즐겁게 먹기 때문에 힘이 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기로 삼지 않고 말씀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혹 말씀이 자신에게 부딪쳐도 씹고 또 되씹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성숙함이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소는 좀처럼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굵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 육중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균형을 잡아 어떤 길에서든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소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에 잘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런 사람 저래서 안 된다고 비판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인에게 맞추는 균형 감각을 소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돌짜길, 진흙길, 위험한 길, 오솔길, 낭떠러지길 등 여러 가지 길입니다. 어떤 길에서든지 오랫동안 걷고 최후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와 같이 영적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의 최고의 존재적 가치는 드러지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적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드러지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종의 능력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기쁘게 하는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말에 따라 움직여야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을 속여서 일시적 성과나 기쁨을 얻을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진정한 승리는 없게 됩니다.

맺는 말
 오늘 우리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소처럼, 자기 영광을 좇지 않고 순종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러질 제물로 준비된 상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전재홍 목사 설교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차도훈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최형열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인 도 자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95:1-3 인 도 자

찬 송 286(218) 다 함 께

기 도 이성우 집사

성 경 갈 3:15-2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율법과 약속” 설 교 자

* 찬 송 267(201)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이난희 권사

성 경 삼하 6:12-23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하나님의 궤 2” ... 설 교 자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오전 5시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양언, 박수강, 김복희2

설 교 박순오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사 1:3)	지난주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 부								
수요 I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1. 살롬 권사회 월례회 / 17일(주) 오후 3시 30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2. 에스터 전도회 총회 / 17일(주) 3부 예배 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 이번 주(11.18-23 오전5시-6시)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를 박순오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온 교회가 은혜를 받아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서울교회로 소생토록 기도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교회설립기념주일추수감사절 / 다음 주일(11월24일)은 우리 교회 설립28주년 그리고 추수감사절 예배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감사와 새 출발의 계기가 되는 주일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동안 참여 못했던 이웃 성도들에게 독려하시어 함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주일예배 시간에는 추수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4. 의료 상담 / 이번 주 상담은 정철웅(일반외과)입니다. (의료상담 오전 10시-11시) 다음 주 상담은 최용준(한방), 이경진(성형외과)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전화 예약 010-2728-5939</p> <p>15.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 전화 예약 010-2376-3892</p> <p>16.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 주신 전재홍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p> <p>☎ 장 레</p> <p>1. 故 홍순봉 집사(12교구 홍증표 집사의 부친, 위성남 권사의 시부) / 11일(월) 별세, 13일(수) 발인</p> <p>2. 故 이종란 성도(9교구 박한옥 집사의 모친, 송인수 집사의 장모) / 14일(목) 별세, 16일(토) 발인</p>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70명	192명	189명	1,251명	119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11/10)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1월10일	헌 금	23,857,900	
	교회학교운영비		2,871,500
	교구운영비		160,000
	출 판 비		250,000
	지원교회		3,000,000
	복리후생비		174,500
	통 신 비		523,120
	수도광열비		130,000
	소모품비		211,140
	차량유지비		377,000
	환경유지비		50,000
	수선유지비		297,000
	식당운영비		1,237,510
	합 계	23,857,900	9,281,770